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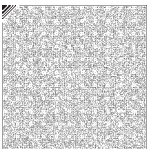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284호

2020년 5월 10일(가해)

부활 제5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98(97),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
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6,1-7

화답송 | 시편 33(32),1-2,4-5,18-19(◎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곤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
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
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

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
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 ◎

제2독서 | 1베드 2,4-9

복음환호송 |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음 | 요한 14,1-12

영성체송 |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
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
루야.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너그러운 마음 갖기!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개인적으로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요한 14,1-2)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여러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해줍니다.

우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은 안도감이 듭니다. 또 물론 개개인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곳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우리가 살 곳이 충분히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큰 위안을 줍니다. 이보다 멋진 구원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서 우리 하느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이신가 감탄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건 이루어내지 못했던 상관없이, 혹은 내가 키가 크고 잘생겼건, 키가 작고 못생겼건 상관없이, 혹은 피부나 출신지나 학위 등 무엇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받아들일 만큼 하느님의 마음은 크고 넓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렇다면 이렇게 포용력이 크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이런 넓은 마음을 받아들여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차별 없이 모든 이를 대하도록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신천지’ 내지 ‘JMS’ 같은 잘못된 유사종교에 빠지는 이들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저’ 세상에 대한 관심만 과도하게 많은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상에서는 주목도 받고 권력도 누리는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저 세상 한탕주의(?)’에 빠져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평화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

교형자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성당에도 잘 나오지 못하고 미사와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내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포와 걱정을 끼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작은 ‘부활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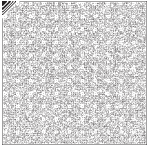
스위스의 수호성인 성 니콜라오 데 플리예를 기리기 위해 세운 Kapelle St. Niklausen ob Kerns 성당. 한 수도자가 성당으로 가는 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언제나 편하고 쉬운 길만으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믿고 따르면 언제나 영원한 삶이라는 목적지에 이를 것으로 믿습니다.



김승길 세실리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수정 데레사 | 경기대학교 교수



처음부터 다시

최근 많은 일들을 겪고 보니 인간이란 기껏 미세먼지도, 바이러스도 이겨내지 못하는 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서로 조금 더 갖겠다고 전력을 다해 싸우기만 하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반으로 쪼개어 네편 내편 아귀다툼으로 날 새는 줄 몰랐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제는 평범했던 일상마저도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서 해소되던 어리석은 욕망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폭발하여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끔찍한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법과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의 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온 국민이 사이버공간 속 n번 방을 통해 처절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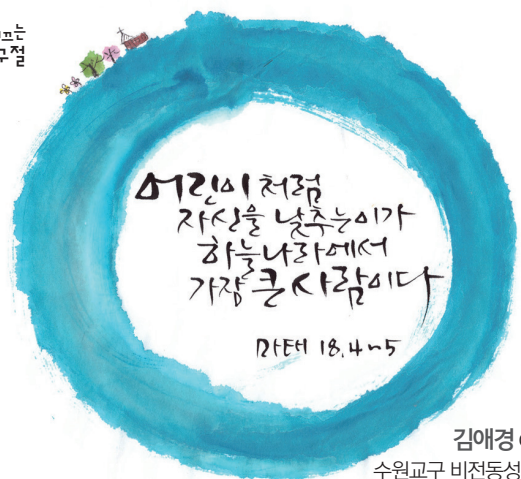
인간사가 이 지경인 데 비하여 꽃나무는 어찌나 계절을 올바르게 아는 것인지 봄이 되자마자 온천지가 꽃밭이 되었습니다. 자연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서 정직할 뿐 아니라 숭고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도 아이들에게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없게 만든 어른인 것이 죄스럽습니다. 바이러스로 가득 찬 오프라인 세상과 아이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사이버공간을 물려주기 위해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왜 이런 세상이 된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난 이십 년 동안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아동 성매매가 악화일로임을 알았던 저 역시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은 저의 나태함 때문이라 자책해봅니다. 이제는 평화롭고 안전하던 지난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환란'이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음을 자인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작은 꽃송이 잎새 하나까지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저 자신의 과실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걷기 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고, 조금이라도 쌀쌀하면 보일러를 가동하는 등 환경을 돌보지 못한 점, 또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고발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낸 한국인들의 지혜를 끌어모아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환경을 위해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온갖 형태의 폭력을 없애고, 다양한 입법 활동에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다 같이 둘러앉아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모두의 작은 실천이 세상의 추락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분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셨던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김애경 에밀리아
수원교구 비전동성체성혈성당

부활시기의 풍습

주님 부활 대축일과 이어지는 50일간의 부활 시기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가장 큰 축제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기념하는지 주요한 풍습들과 그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목국 기획연구팀

구분	의미	유래
부활달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상징 • 껍질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머무르셨던 바위 무덤을 상징하고 흰자는 변하지 않는 믿음, 노른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래에 관한 다양한 전설이 있는데 10세기 이집트 그리스도교인 사이 풍습이 발견됨 • 선물로 나눠 받는 것은 17세기 수도원에서 예쁘게 채색한 달걀을 서로 나누는 풍습에서 시작되어 널리 전파되었음
토끼, 양 모양 과자, 초콜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양 모양의 과자나 초콜릿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요한 1,29)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때 부활의 깃발이 함께 그려져 있음 • 이교 문화 안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토끼는 교회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시대 신자들은 양, 닭, 토끼 등 짐승 모양의 빵과 과자를 만들어 부활 음식과 함께 축복을 받고 나누어 가짐 • 토끼와 관련된 지금의 부활절 풍습은 15~16세기 독일에서 유래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풍습을 이어가고 있음
엠마오 소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루카 24,13-29)를 연상하게 하는 소풍으로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에 기도와 성가를 하면서 가까운 산야를 찾아가는 영성적인 소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남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풍습 • 우리나라의 경우, 본당 또는 수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쉼을 위한 소풍을 다니고 있음
부활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탄 카드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기쁨을 주고받고자 부활에 걸맞은 인사말을 상징들과 함께 주고받는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여러 다양한 나라에 전파되었음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이 말 안에는 기쁨과 희망의 선포뿐 아니라, 책임과 사명에 대한 선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케이크나 부활 달걀을 나눠 먹고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 파티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축제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사명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2018.3.28.) 중에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된 진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외국의 한 시인이 표현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온 지난 두 달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아름다운 봄마저도 앗아갔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 중지’라는 미증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미사가 중지 되면서 서울주보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종이 주보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 스마트폰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 두기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소중한 요소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차 간 거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공간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거리 두기는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집착이나 애착, 정서 불안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기생할 숙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집콕방콕(?)을 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일상의 고마움,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내가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도 다른 이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무기한 중단

교구는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 현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에 맞춰 4월 6일부터 미사를 재개하도록 추가 연기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 안내 공문 및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31일, 학생들의 등교를 무기한 연기하며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구는 미사 재개의 어려움과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4월 1일 임시 사제평의회를 비상소집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합니다.
2. 미사 재개를 전제로 했던 주님 부활 대축일 전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취소됩니다. 단, 개별고백을 통한 부활 판공성사는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유효합니다.
3. 성유족성미사는 사제평의회 위원만 참석하도록 합니다.
4. 성주간 전례와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기쁨의 평화방송(생방송, 유튜브)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카오톡 실행하기 →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 채널 추가하기

Ch 서울주보

상처를 돌보는 사람, 그들이 찢(?) 신자인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자연히 이웃사랑에 관해 묵상을 하게 합니다. 생명공학자들은 너와 나의 차이가 0.1%라고 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삶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웃에게 먼저 행하는 성숙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나의 삶이 전적으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형제님께서 매일 한 통을 딸의 사진과 함께 보냈습니다. 의사인 딸이 매일 병원에서 코로나19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몹시 불안해하시며 저에게도 기도를 청했습니다. 저는 난생처음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보호장비를 입고 일하는 딸의 사진을 보내 기도를 부탁했을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문득 예전에 성당 문에서 본 글귀가 생각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특별 대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병자들, 의료진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전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코로나 특별대사 QR

교리툰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코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천주교 교리, 웹툰으로 만나볼까요? <교리툰> 1화부터 보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14일 이계선 레오 신부(61세)
- 2008년 5월12일 장대익 루도비코 신부(85세)

서울대교구 미사재개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

※ 미사 참석자 구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일 미사 참여 의무 제외).

- ①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
- ②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신자
- ③ 고령자(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신자

④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

※ 미사 전 준비

- ①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②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의 역학 조사를 대비하여, 미사 참여자는 참석 기록을 남깁니다(다른 본당 소속인 경우, 소속 본당 이름도 적습니다).

※ 미사 중 유의사항

- ①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② 성체 분배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③ 미사 중 성가나 기도문 함송은 되도록 피하

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④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⑤ 미사 중에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⑥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아멘'을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합니다).
- ⑦ 성경과 성가집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을 사용하며, 헌금 봉투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⑧ 미사 중 본인이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모집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한국어교육, 유아, 진로진학상담, 특수, 직업특수, 평생 / 모집: 5월11일(월)~24일(일)
면접: 5월29일(금) 18시30분 / 문의: 02)2164-4173, 4176, 4787(<https://ged.catholic.ac.kr>)

2020학년도 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석사과정(5학기) / 모집전공: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전공(CCM 작곡전공포함)
학위 및 자격증 수여: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6월1일(월)~12일(수) 9시~17시 / 전형일장: 7월10일(금),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883~5(<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직원모집

구립양천SOS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모집

대상: 보육교사1·2급 및 유치원정교사(피아노반주가능 가점) / 문의: 02)2699-9015(제출서류 안내)

구로2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861-4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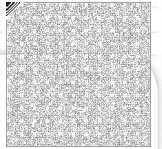
분야: 사무장(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및 PC 가능한 분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5월13일까지 우편(우 0827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49길 4 구로2동성당) 및 방문 접수
채용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직원 모집

대상: 연수담당 1명 / 5월16일(토)까지 접수
접수: 홈페이지(www.chota.or.kr) 참조 / 문의: 02)3672-2893

서울대교구 성 앵베르 센터(은평구 소재 피정의 집) 직원 모집

대상: 세례를 받은 분, 단체 급식 조리 경력 우대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부서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cinsa@seoul.catholic.kr) 접수
채용시까지 접수 / 이메일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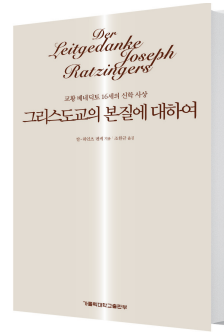


신간

영의 식별

티모시 갤러허 지음 | 김두진 옮김
이나시오영성연구소 | 392쪽 | 1만5천원
문의: 02)3276-7794

식별에 관한 성 이나시오의 규칙을 일상 삶에 적용하여 지속적인 영성 생활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영적 실망과 악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영신수련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신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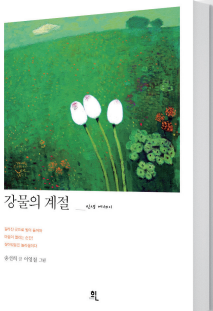


신간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하여

칼-하인츠 멘케 지음 | 조한규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52쪽 | 1만2천원
문의: 031)740-9718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누구나 답할 수 있을 듯한 질문이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일생의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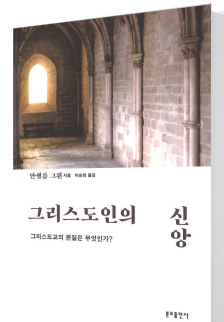


신간

강물의 계절

송선희 지음
하양인 | 288쪽 | 1만4천5백원
문의: 02)714-5383

이 책은 하염없는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남편 요한이 작가인 아내의 발을 씻어 주는 장면, 돌아가신 아버지와 외할머니와의 사랑 이야기, 엄마가 내지르는 가슴 아픈 통곡 소리 등이 생생하게 펼쳐지며 우리네 인생도 함께 돌아보게 한다.



신간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셀름 그륀 지음 | 이승희 옮김
분도출판사 | 208쪽
1만8천원 | 문의: 02)2266-3605

이 책은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밝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종교가 주는 해방과 치유,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길이 지닌 매력을 새롭게 일깨우려 한다. 또한 이웃 종교의 경험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교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 준다.



신간

언어, 빛나는 삶의 비밀

스메모리 치예코 지음
바오로딸 | 192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저자 스메모리 치예코의 인생은 얼핏 보면 매우 불행해 보일 수 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을 긍정하고 낙관적으로 입장을 꾸려나가는 저자는 언어와 복음을 매개로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삶의 지혜를 일깨운다.



영화

저 산 너머

상영관: 서울 CGV, 서울 롯데시네마, 서울메가박스
해당 상영관으로 문의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
시 주보 1부 1명 3000원 할인 또는 7000원 관람(서울
CGV, 서울 롯데시네마, 서울메가박스)

CGV 단체관람 문의(최소 20명 이상): 1544-1122
단체 6000원 관람(CGV 단체관람 가능 극장: 강남 동대문, 목
동, 신촌아트트론, 대학로, 명동, 파크시네마, 용산아이파크)

영화 <저 산 너머>는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극영화로 故 정채봉 동화 작가가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정신을 엮어냈던 원작을 영화화했다. 맑은 영혼의 7살 아이가 믿음을 키워가는 성장담 속 훌륭한 어머니의 참된 교육, 서로에게 힘이 된 가족의 사랑을 담았다.

【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 】

■ 미사 전 준비

- 미사 참례자는 대성전 입장 전,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조사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전으로 입장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둔 지정석에만 앉습니다.

■ 미사 중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거나 가능한 한 조용히 응답합니다.
-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예: 평화의 인사 등).
-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아멘’ 합니다.
- 봉헌과 영성체 행렬 시 앞 사람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 성경과 성가책은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미사 후

-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가져갑니다.
- 미사 후에는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미사 30분 전까지 대성전 출입을 통제 하오니 미사가 끝나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 미사 재개에 따른 기타 방침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설 고해소와 예비신자 교리학교 운영, 본당 제 단체의 모임과 회합, 외부 대관행사는 ‘계속 중단’됩니다.

【 2020년도 교무금 책정·납부 】

2020년 4월 30일(목) 현재, 본당 **19,347세대 중 2,6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 하였고, 이는 **전체 대비 13.8%에 불과**합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아직 못 하신 교우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에 내방 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신자들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시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5월 성모 성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은 하느님 백성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신심을 더욱 각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5월에 집에서, 가정 안에서 묵주 기도를 드립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이때에 이처럼 가정 차원에서 드리는 묵주 기도는 영성적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 모든 이가 가정에서 묵주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나가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하여 어느 쪽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묵주 기도를 바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소박함입니다. 따라 하기에 좋은 기도 형태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묵주 기도를 마칠 때 드릴 수 있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저 역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이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서한에 기도문들을 첨부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함께 바라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가정으로 더욱 하나 되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특히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큰 사랑을 담아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0년 4월 25일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프란치스코

☞ 상기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돼 있습니다.

인쇄물은 성당 사무실에 비치돼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774-1784(☎)
753-1784(FAX)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지상술(힐 라리 오)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성모 성월 꽃 봉헌

과거 서양의 교우 가정에서는 5월 성모 성월이 되면 성모님을 위한 제대를 꾸미고 저마다 집에서 가꾸는 꽃들 중 가장 좋은 꽃으로 그 제대를 꾸미곤 했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 그 분이 누리신 기쁨과 영광을 떠올리고 묵상하던 전통을 기리며 본당 사무실에서는 5월 한 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접수합니다.

※꽃 봉헌금도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요 일	미사시간	미사장소
월~토	10:00, 18:00	대성전
일요일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영어미사 없음.)	

※토요일 오후 6시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대성전 개방 시간

☞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주 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채운 측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례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되며,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일미사 참례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중단됩니다.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 참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

◎ 교우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보 안쪽 면에 안내된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해 주시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본당 수칙에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4월 27일 ~ 5월 3일 : 100,000원)
누계 : 1,529,615,123원

익 명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변경

시행일	화~토요일	주 일
3월 1일부터	09:00-20:00	07:30-21:00
4월 23일부터 정상화 될 때까지만	09:00-19:00	07:30-19:00

◎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하반기로 연기

5월 개강 예정이었던 35~45세 청년 대상의 늘푸른 청년 주일학교 1학기 강의는 코로나19 확산우려로 인하여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 2020년도 상반기 견진성사 취소

5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 주일 4주간 견진교리 후 5월 31일(주일) 거행될 예정이었던 본당 상반기 견진 성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 신자들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서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0년 성모 성월을 맞이 하여, 특히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이때에, 5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하나 되어 묵주 기도를 바치자는 내용으로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한(2020년 4월 25일자)을 발표하셨습니다.

(☞ 주보 안쪽 면 참조)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4/27-5/3).....26,950,000
- 부활 제 4 주일 헌금.....8,605,740
- 성소 주일 2차 헌금.....3,842,000
- 감사헌금 (4/27-5/3).....1,557,000

문 엘리사벳 / 박 도미니카 / 박 미카엘라
오 엘리사벳 / 이 미카엘라 / 정 안드레아
최 안젤라 / 익명(2)